

# 이코그램을 이용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아 상태 유형 분석\*

## Analysis on Ego State Types of Public Librarians by Ego-gram in Korea

송 기 호(Gi-Ho Song)\*\*

### <목 차>

I. 서론	IV.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아 상태 유형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에 참여한 사서의 개인별 특징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사서의 자아 상태 유형
II. 이론적 배경	3. 사서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자아 상태 비교
1. 이코그램	4. 사서의 자아 상태 특징
2. 이코그램에 의한 성격 유형	V. 결론 및 제언
III. 선행연구 분석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정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기능적 자아 상태 유형을 교류 분석에서 제시한 이코그램을 통해서 분석하고 교수자로서 사서가 안고 있는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아 상태 유형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NP-AC-A-CP-FC와 같이 N형(나이팅게일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아 상태의 특징은 ‘헌신적이지만, 자기 부정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사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요구와 태도를 양육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A(성인), CP(비판적 아버지) 그리고 FC(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태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와 FC의 신장은 사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사서, 이코그램, 자아 상태, 자아 유형, 성격 유형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unctional ego state of public librarians who should take a role of an information intermedi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through the ego-gram which is suggested in transactional analysis theory and review their limit and feasibility as instructor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whole ego state type of public librarians is founded to be N-type(Nightingale type) like NP-AC-A-CP-FC. The characteristics of this type can be interpreted as ‘to show the tendency of self-denial in spite of their dedication.’ So, the public librarians have to do their best to develop A(Adult), CP(Critical Parent) and FC(Free Child) ego state to take the requirements and behaviors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in nurturing attitudes and enhance their autonomy and creativity through active mutual interaction. Improving A and FC is also very helpful to decrease their stress and raise their job satisfaction.

Keywords: Public librarians, Egogram, Ego state, Ego types, Transactional analysis, Personality types

\* 이 논문은 2014년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연구 지원으로 이루어진 『글쓰기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학교-공공도서관 연계 방안 연구』의 내용 일부(68-76)을 수정보완한 것임.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부교수(giho7@kongju.ac.kr)

•논문접수: 2015년 4월 23일 •최초심사: 2015년 5월 23일 •게재확정: 2015년 6월 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29-48,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6.2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Shera는 사서의 역할을 “인간의 지식 발달에 기여하는 모든 자료와 개인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로 규정하였다. 중재자로서 사서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취급하는 자료의 내용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분화된 개인에 대한 이해”이다. 특히 Shera는 “사서는 세분화된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여야 하며, 각 개인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를 상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hera 1984, 28). 이것은 사서가 매체 전문가로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의사소통능력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서가 상호 교류해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사서와 이용자 간 새로운 커뮤니티 구축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리고 조직 문화 자체가 수평적이고 유연해짐으로써 직원 상호 간에도 직접적인 교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Prentice 2011, 127-128). 또한 도서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사서와 이용자 간 접촉의 폭을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도서관 경영 환경에서 의사소통 문제는 참고 사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서의 문제가 되었다.

특히 구성주의 교육관은 다양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자원 간의 상호작용을 자기주도적인 지식 획득의 중요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역시 중요한 교육 환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IFLA/UNESCO(1994)의 『공공도서관 선언』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공도서관은 ‘모든 수준의 공식 교육과 개인의 독자적인 학습을 지원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서비스 기준』(Koontz and Gubbin 2010)을 보면, 공공도서관과 관계가 있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 바로 학교와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중재자로서의 사서가 이용자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인 에너지의 분포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울러 사서는 이용자를 이해하고, 이용자와 교감할 수 있는 자아 상태를 갖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이고그램(Egogram)을 이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보 중재자로서

의 역할 수행이 강조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기능적 자아 상태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이코그램의 자아 상태가 지닌 일반적인 특징이 연구에 참여한 사서의 개인별 배경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이상적인 자아 상태와의 비교를 통해서 사서가 증진해야 할 자아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이용자와의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서의 자아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별 특성(성별, 연령대별, 소속기관별, 근무지별)의 구체적인 원인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를 안고 있다.

사서의 자아 상태 유형 분석을 위한 설문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가 온라인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2014년 6월 1일~6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 상태 측정 도구(부록 참조)는 송기호(2014)가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 분석에 사용한 체크리스트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이병래(1996)가 개발한 검사 척도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서비스업 종사자와 예비 교사들의 자아 상태 유형 분석 등에 활용되었다. 이 체크리스트의 문항 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가지 자아 상태 유형별로 10개씩 총 50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자아 상태 유형별로 5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이코그램 체크리스트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자아 상태 유형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CP(비관적 아버지 자아)	3, 5, 10, 14, 20, 23, 27, 29, 39, 44	10	.635
NP(양육적 아버지 자아)	6, 7, 12, 17, 24, 42, 43, 46, 48, 50	10	.731
A(성인 자아)	1, 8, 15, 19, 21, 33, 36, 40, 41, 49	10	.673
FC(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2, 9, 22, 28, 32, 34, 37, 38, 45, 47	10	.741
AC(순응적 어린이 자아)	4, 11, 13, 16, 18, 25, 26, 30, 31, 35	10	.638
문항 계	50 문항		.684(평균)

(출처 : 송기호 2014,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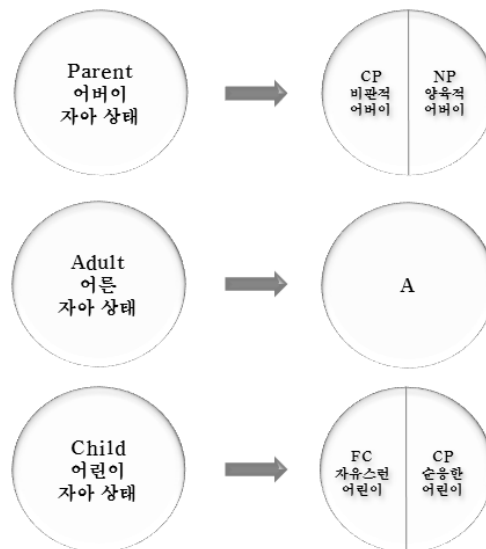
우선 설문 내용을 자아 상태 유형별 표준 점수로 산출하여 공공도서관 사서의 전체적인 자아 상태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사서의 개인별 특성(성별, 연령대별, 소속기관별, 근무지별)에 따라서 자아 상태 유형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SPSS WIN 15.0 프로그램으로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이고그램

교류 분석(Transaction Analysis) 중에서도 구조 분석에 속하는 이고그램은 자아 상태를 기능적으로 파악하고 세 가지 자아 상태(P-A-C) 사이에 흐르고 있는 심적 에너지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우재현 2013, 8). 교류 분석의 목적은 ‘자신에 대한 자각을 깊게 함으로써 심신의 자기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자신의 사고방식, 느낌 방식 및 행동에 책임을 갖는데 까지 성장하는 것 그리고 왜곡된 인간관계에 빠지지 않고 서로 친밀한 마음의 접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우재현 2008, 6-7).

교류 분석에서는 인간의 자아 상태를 구조 분석하여 아버지(P: Parent), 어른(A: Adult), 그리고 어린이(C: Child)와 같이 세 가지 교류 단위로 구분한다. 구조 분석에 의한 P, A, C 세 가지 자아 상태를 기능적으로 세분하여 개인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기능 분석이다. 기능 분석에 따르면, P는 CP(Critical Parent: 비판적인 아버지)와 NP(Nurturing Parent: 양육적 아버지)로 나뉘고, C는 FC(Free Child: 자유로운 어린이)와 AC(Adapted Child: 순응한 어린이)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A는 더 이상 나누지 않고 사용한다(유영현, 박경숙, 최용용, 2011, 7). 인간의 언행이나 태도를 분류하는 세 가지 자아 상태의 구조와 기능 분석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출처 : 김종호 2008, 93)

<그림 1> 세 가지 자아 상태의 구조 및 기능 분석

## 2. 이코그램에 의한 성격 유형

이코그램은 사람의 기능적인 자아 상태들이 성격 구성에서 갖는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또한 인간의 마음속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감정을 취급하는 심리적인 지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코그램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아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코그램에 의한 다섯 가지 자아 상태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재현 2013, 4-8; 조성연, 정정옥 2004, 72-73).

어버이 자아 상태(P)는 부모와 같이 자신의 생활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타인의 말과 행동을 듣고 관찰한 내용들이 내면화된 것이다. 따라서 P가 주도권을 장악하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부모가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행동, 손놀림, 말, 대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비판적 어버이 자아 상태(CP)는 이상, 양심, 책임, 비판 등의 가치판단이나 윤리관 등 아버지적인 엄격함을 갖는다. 창조성을 억제하는 엄한 면도 있지만, 사회질서의 유지능력이나 이상 추구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양육적 어버이 자아 상태(NP)는 공감, 동정, 보호, 수용 등 아동기의 성장을 촉진하는 어머니적인 특징을 지닌다. 타인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 또한 동정적이고 애정이 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보이지만, 지나치면 상대방의 독립심이나 자립을 억제할 수도 있다.

어른 자아 상태(A)는 사실에 입각해서 사물을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냉정하게 계산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A가 주도권을 장악하면 P의 편견과 C의 감정이 통제되며, 통합적으로 적응성이 풍부하고 창조력도 높다. 어른 자아 상태는 지성, 이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A 우위의 사람은 합리성, 생산성, 적응성을 바탕으로 냉정한 계산에 의해 합리적인 언행을 하지만, 지나치면 자기 분위와 타인 무시의 경향이 강해져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 되기 쉽다.

어린이 자아 상태(C)는 인간이 갖고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본능적인 욕구나 감정 등 생명의 원천과 관련이 있다. C는 생후 5세경까지 주로 부모와 관련된 외적 사태들에 대한 감정적 반응체제가 내면화된 것으로 자유스러운 어린이 자아 상태(FC)와 순응한 어린이 자아 상태(AC)로 나뉜다. FC는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감정 표현에 솔직하며 호기심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자아 상태이다. 좋고 나쁜 것을 확실히 하고 있어 자유분방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자기중심적이고 제멋대로여서 주위와 협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AC는 부모를 항상 의식하는 상태로 주위에 마음을 쓰며 자유로운 감정을 억제하는 착한 아이 같은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주체성이 부족하고 항상 주위에 영합하려고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욕구불만이 생겨 열등감을 품거나 가끔 반항이나 폭발적인 분노를 느끼는 자아 상태이다.

이코그램을 분석하면 개인의 외부에 드러난 사고, 감정, 행동 등을 보고 그 사람의 자아 상태를 추정할 수 있으며(한국교육분석학회 2012),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거나 질적 향상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김중호 2008, 92).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적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며, 어느 한 자아 상태가 증가하면 다른 자아 상태들은 감소한다. 따라서 다섯 가지 자아 상태의 에너지양을 막대그래프로 표현하는 이코그램에서 그래프 높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송희자 2010, 56). 이상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기별 자아 상태의 행동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자아 상태 유형별 행동 특성

구조 분석	기능 분석	자아 상태	말	태도	상대가 받는 느낌
P	CP	비판적, 통제적, 권위적, 정의감, 전통	이렇게 해, 해서는 안 돼, 소용없어, 틀림없어~하다.	깔보는 자세, 팔짱을 낀다, 비난하는 얼굴 모습, 압력을 가하는 자세	알보이고 있다, 간섭받고 있다.
	NP	양육적, 보호적, 동정적, 염려, 돌봄	잘했어, 가엽게도, ~이 마음에 걸려, 예쁘군, 귀여워, 열심히 하면 된다.	포용한다, 애정이 깃들어 있는 모습	위로받고 있다, 간섭받고 있다.
A	A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과학적, 객관적, 능률적, 사실 평가적, 컴퓨터적	6하 원칙, 구체적으로 말하면~라는 겁니다.	발을 바르게 착지하고, 손은 조용히 무릎 위에 얹은 올바른 자세, 안정된 기분, 침착한 목소리, 눈을 깜박거리며 골똘히 사고하는 표정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방식, 타산적이라고 생각
C	FC	충동적, 직관적, 창조적, 향락적	와, 카, 아아, 유쾌하다, 좋아해, 멋있어	희노애락의 직접적인 표현, 웃음, 항변, 놀이, 눈물, 주시	자유스러움, 밝고 명랑함
	AC	순응적, 소극적, 타율적, 감정억압적, 순종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해도 괜찮을까요?	발끈하거나 공격하는 행동, 남의 안색을 살피는 태도	비굴함, 좋은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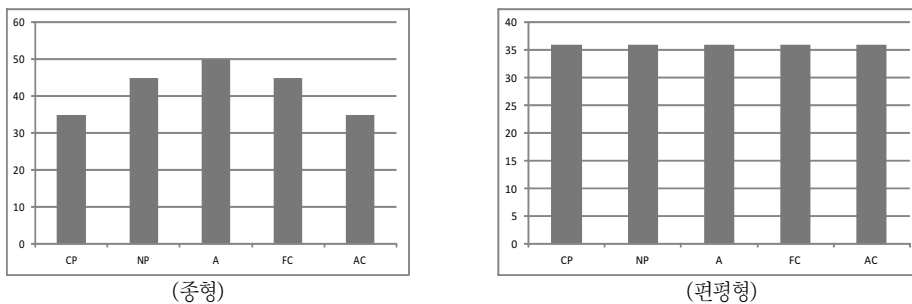
(출처: 김중호 2008, 95-96)

### Ⅲ. 선행연구 분석

이코그램을 통한 자아 상태 유형 분석에 대한 연구는 상담이나 교육학 분야에서 학생이나 예비교사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독서교육 분야에서 성격 유형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송기호(2014)는 이코그램에 의한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서교사는 NP가 높게 나타나는 다른 교사들과 달리 지배적이고 비판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CP와 의존적이고 자기비하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AC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책임감이나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는 엄격한 자신과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자신이 끊임없이 갈등을 반복하는 고민하는 성격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윤옥 등(2012)은 에니어그램(Enneagram)을 활용하여 성격 유형별 선호도서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후속 연구(한윤옥, 조미아 2013)에서는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별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대출도서 선호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미선(2012)은 부모의 에니어그램 힘의 중심에 따라서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대와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자아 상태 유형을 발견하는 것이 인성 발달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Dusay는 이상적인 이코그램을 종형(Bell-shaped)과 편평형(Flat-top)이라고 제시하였다. 종형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가 가장 높고 NP와 FC가 그 다음으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형태이다. 그리고 편평형은 모든 자아 상태가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이병래 1996, 148).



(출처 : 이병래 1996, 148)

<그림 2> 이상적인 자아 상태 유형

박명희(2004)는 대인 관계에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코그램을 산(山)형(보통형), N형(나이팅게일형), 역N형(도널드덕형), V형(햄릿형), W형(베르테르형), M형(우상형), 우경사형(보스형)과 같이 7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따르면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 유형은 V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재현(2008)은 질병과 생활방식에 따라서 이코그램 유형을 일중독형(NP 우위), 우울증형(CP 우위), 비행청소년형(NP와 FC 우위 A 낮음), 비만형(FC 낮음), 건전한 사람형(NP 우위의 보통형), 자타부정형(AC 우위 NP 낮음)으로 구분하였다.

송희자(2010)는 자아 상태를 CP 우위형(완고한 경관형, 범죄자형, 남성 우월주의, 고뇌형), NP 우위형(헌신형, 호인형, 보디 가드형), A 우위형(이성형, 모범생형, 심사숙고형, 도서관 사서형, 목표 지향형), FC 우위형(모험가, 피터팬형, 실속 없는 예술가, 자기주장형),

AC 우위형(헌신형, 갈등형, 의존자, 벽의 꽃)과 같이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도서관 사서형은 A가 가장 높고 CP와 FC가 낮은 유형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성격(A)이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FC의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이코그램을 통한 자아 상태 분석 결과를 보면,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자아 상태는 A와 NP 그리고 FC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사서와 이용자의 자아 상태나 성격 유형 분석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며, 사서의 의사소통 방식과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IV.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아 상태 유형 분석

##### 1. 연구에 참여한 사서의 개인별 특징

설문에 참여한 사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65명이며, 이중 남자 사서가 21명(12.7%), 여자 사서는 144명(87.3%)의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75명(45.5%)로 가장 많고, 근무지역별로는 시·군지역이 73명(4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소속기관별로는 교육청 소속이 77명(46.7%),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88명(53.3%)으로 비슷한 참여율을 보였다.

<표 3> 개인별 특징에 따른 설문 참여 사서 현황

구분	성별		연령별				소속기관			근무지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교육청	지자체	특별시	광역시	사군지역	읍면지역
N	21	144	34	75	55	1	77	88	37	39	73	16
%	12.7	87.3	20.6	45.5	33.3	6	46.7	53.3	22.4	23.6	44.2	9.7

##### 2. 사서의 자아 상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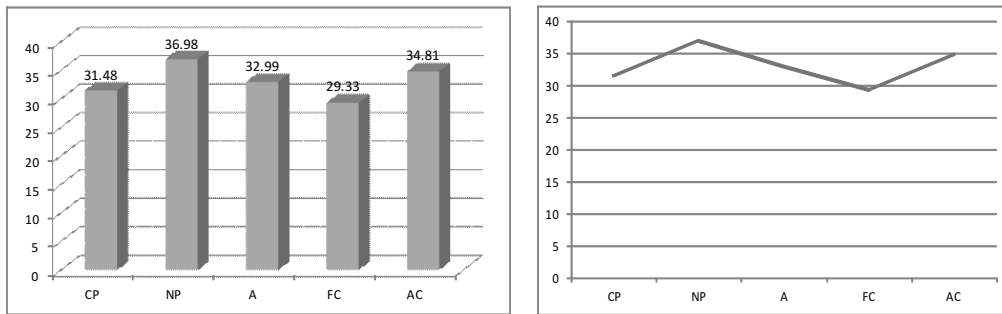
본 연구에 참여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아 상태 점수 분포는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NP-AC-A-CP-FC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P-NP-AC-A-FC 순을 보인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 유형(송기호 2014, 84)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표 4> 연구 대상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아 상태 평균 점수

자아 상태	N	Minimum	Maximum	Mean	SD
CP	165	2.00	4.70	31.48	4.47
NP	165	2.80	4.90	36.98	4.19
A	165	2.20	4.20	32.99	4.05
FC	165	1.90	4.30	29.33	4.56
AC	165	2.00	4.50	34.81	4.69

공공도서관 사서의 전체적인 자아 상태 유형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적인 자아 상태인 중형이나 편평형과는 달리 N형(나이팅게일형)을 보였다. 또한 송희자(2010)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A 우위의 도서관 사서형과 달리 NP 우위의 헌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NP를 정점으로 하고 FC를 낮은 점으로 하는 N형은 자기 부정적이고 타인에게 의존적이다. 이 형태의 사람은 NP가 높기 때문에 배풀기를 잘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온정이 많다. 그리고 AC가 높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삭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FC가 낮기 때문에 거의 놀지 않으며, 기분 전환도 잘 할 줄 모르고 싫은 감정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한다. 따라서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스트레스성 질병에 걸리기 쉬운 자아 상태이다(박명희 2004, 16; 송희자 2010, 61).



<그림 3>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아 상태 유형

### 3. 사서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자아 상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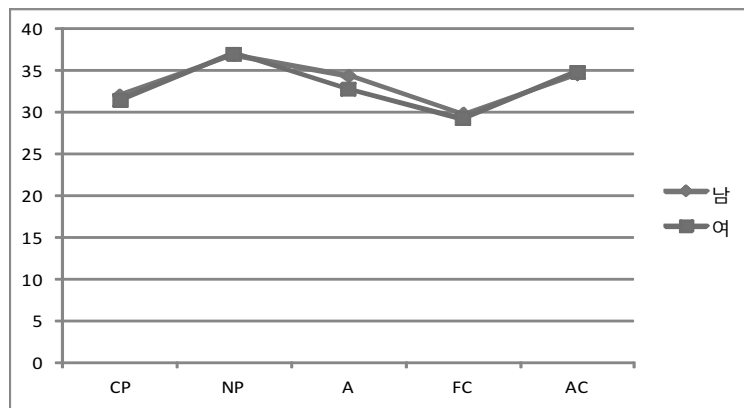
연구에 참여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성별 자아 상태 유형을 분석한 결과 <표 5> 및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 모두 NP-AC-A-CP-FC 순으로 NP 우위의 자아 상태를 보였다. 특히 여자 사서의 NP 평균 점수가 0.04점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F < 0.05$ )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CP와

A 모두 남자 사서의 평균 점수가 각각 0.6점, 1.59점 높게 나타났다.

<표 5> 공공도서관 사서의 성별 자아 상태 유형 분석 결과

성별	N	CP			NP			A			FC			AC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남	21	32.00	4.19		36.95	2.57		34.38	2.97		29.76	4.85		34.57	3.91	
여	144	31.40	4.52	.321	36.99	4.38	.002	32.79	4.16	2.856	29.27	4.53	.211	34.84	4.80	.063
계	165	31.48	4.47		36.98	4.19		32.29	4.05		29.33	4.56		34.81	4.69	

NP의 주된 성향은 아이들이나 후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며 가족처럼 불편한 점을 보살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교사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자아 상태 유형이다(김규수, 이병래 1995, 338; 이은주 2007, 131-132). 반면에 NP의 부정적인 성향은 상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개입하여 자주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지나치게 동정적이어서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성별 자아 상태를 이코그램으로 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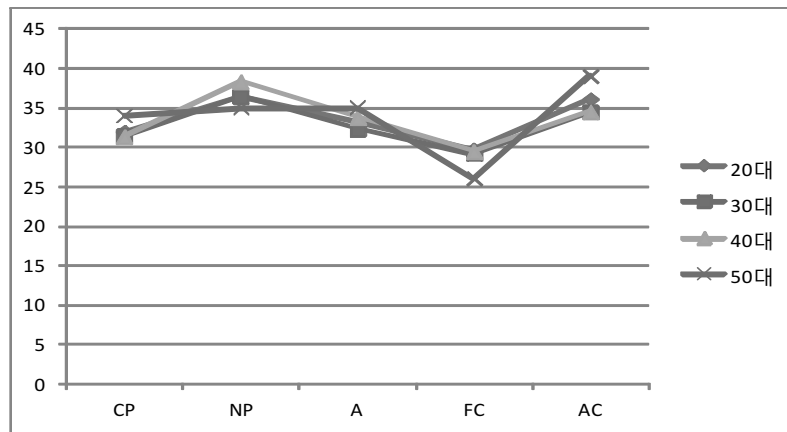
<그림 4> 공공도서관 사서의 성별 자아 상태 이코그램

연령대별로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아 상태를 분석한 결과 <표 6> 및 <그림 5>에서 보는바와 같이 20대, 30대, 40대 모두 NP-AC-A-CP-FC순으로 NP 우위를 보였으며, 50대는 AC-NP·A-CP-FC순으로 AC 우위의 자아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50대의 경우 표본수가 1명에 불과하여 연령별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 $F < .05$ )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공공도서관 사서의 연령별 자아 상태 유형 분석 결과

연령	N	CP			NP			A			FC			AC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20	34	31.91	4.71		36.35	3.79		33.32	4.44		29.67	4.40		36.08	3.89	
30	75	31.38	4.39		36.36	4.06		32.27	3.95		29.14	4.24		34.41	4.64	
40	55	31.30	4.51	.248	38.27	4.40	2.696	33.72	3.87	1.559	29.43	5.11	.290	34.49	5.13	1.378
50	1	34.00	.		35.00	.		35.00	.		26.00	.		39.00	.	
계	165	31.48	4.47		36.98	4.19		32.99	4.05		29.33	4.56		34.81	4.69	

AC의 긍정적인 측면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지만, 지나치면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비위에 맞추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연령대별 자아 상태 유형을 이코그램으로 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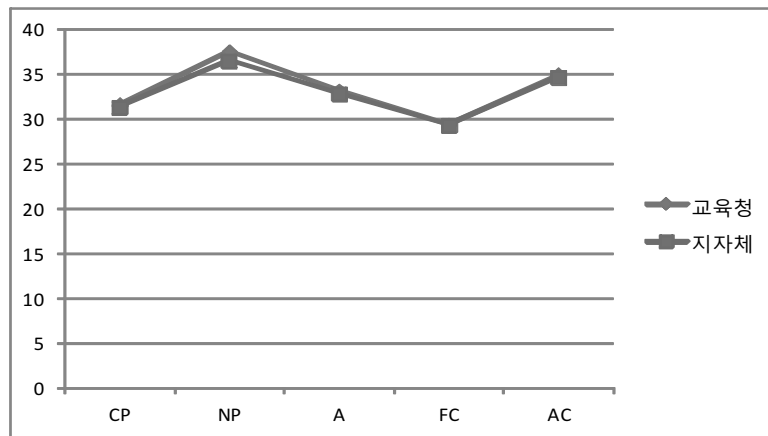
<그림 5> 공공도서관 사서의 연령대별 자아 상태 이코그램

공공도서관 사서의 소속기관별 자아 상태를 분석한 결과 <표 7> 및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NP-AC-A-CP-FC순으로 NP 우위의 자아 상태를 보였다. 특히 교육청 및 지자체 소속 사서 모두 FC의 점수가 29.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F < .05$ )으로 나타났다.

〈표 7〉 공공도서관 사서의 소속기관별 자아 상태 유형 분석

근무처	N	CP			NP			A			FC			AC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교육청	77	31.59	5.14		37.54	4.10		33.18	4.45		29.33	4.58		34.92	4.88	
지자체	88	31.38	3.82	.095	36.50	4.23	2.575	32.81	3.69	.342	29.33	4.56	.000	34.71	4.55	.079
계	165	31.48	4.47		36.98	4.194		32.99	4.05		29.33	4.56		34.81	4.69	

FC는 자기중심적이고 적극적임과 동시에 호기심이나 창조성이 강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따라서 부모나 상사, 연장자의 반응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을 자유롭게 나타낸다. 이 자아 상태가 지나치게 강하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사서의 경우 AC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FC의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AC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서들은 ‘상대의 눈치를 보고 비위에 맞추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소속기관별 자아 상태 유형을 이고그램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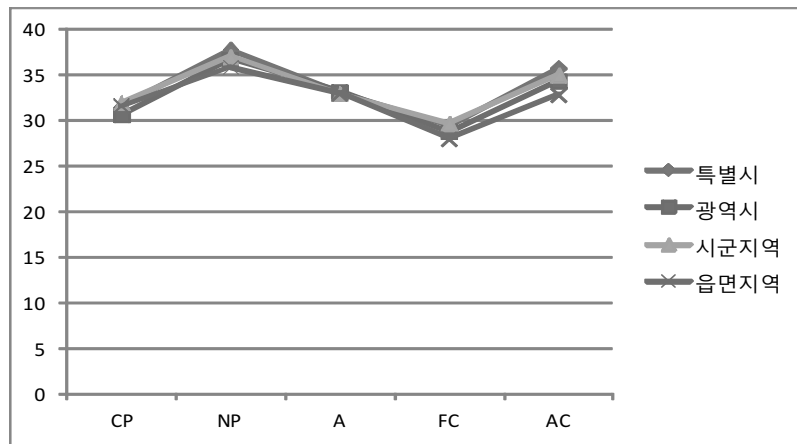
〈그림 6〉 공공도서관 사서의 근무기관별 자아 상태 이고그램

공공도서관 사서의 근무지역에 따른 자아 상태는 <표 8> 및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에 상관없이 NP-AC-A-CP-FC순으로 NP 우위를 보였다. 특히 A의 평균 점수는 광역시(33.16)가 가장 높고, 읍·면지역(33.00), 특별시(32.97) 그리고 시·군 지역(32.90)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F < .05$ )으로 나타났다.

〈표 8〉 공공도서관 사서의 근무지역별 자아 상태 유형 분석

지역	N	CP			NP			A			FC			AC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특별시	37	31.47	3.94	.720	37.78	4.31	.894	32.97	4.11	.036	29.43	4.96	.971	35.78	4.23	1.676
광역시	39	30.61	5.20		36.66	4.72		33.16	3.80		28.79	4.39		34.35	5.37	
사군	73	31.91	4.47		37.00	3.91		32.90	4.06		29.68	4.47		35.00	4.51	
읍면	16	31.62	3.75		35.87	3.79		33.00	4.80		28.00	4.33		32.81	4.44	
계	165	31.48	4.47		36.98	4.19		32.99	4.05		29.33	4.56		34.81	4.69	

A의 긍정적인 측면은 사실에 입각한 판단과 분석적이고 냉철한 계획에 입각한 행동을 하고, 사물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은 재미보다는 기계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냉정한 태도를 가지며, 감정이 통제되어 일 이외에는 즐기 않고 감정이 무딘 태도를 갖는다는 점이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근무지역별 자아 상태 유형을 이코그램으로 제시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공공도서관 사서의 근무지역별 자아 상태 이코그램

#### 4. 사서의 자아 상태 특징

본 연구에 참여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전체적인 자아 상태는 NP와 AC가 높고 FC가 낮은 N형(나이팅게일형) 또는 헌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N형의 특징은 NP가 높기 때문에 헌신적이지만, 한편으로는 FC가 낮아 자기 부정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경우에도 사서교사와 같이 AC가 높게 나타났다. AC는 신중한 의사결정과 조심성 있는 태도

를 갖지만, 지나치면 상대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에 맞추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직급이나 지위에 따른 명령 체계와 수직적 위계 구조가 존재하는 공공도서관의 조직 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자 사서의 NP 평균 점수가 0.04점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 $F < .05$ )를 보였다. 소속기관별로는 교육청과 지자체 소속 사서 모두 FC의 점수가 29.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 $F < .05$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무지역별로는 A 자아 상태가 유의미한 차이 ( $F < .05$ )를 보였다. 즉 광역시의 A 평균 점수(33.16)가 가장 높고, 읍·면지역(33.00), 특별시(32.97) 그리고 시·군지역(32.90)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아 상태 유형은 배풀기를 잘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온정이 많으며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는 긍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삭이면서 싫은 감정을 쉽게 잊어버리지도 못하는 부정적인 성격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의 놀지 않으며, 기분 전환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는 자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이코그램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공공도서관 사서의 전체적인 자아 상태는 NP-AC-A-CP-FC 순으로, NP 우위의 N형 또는 헌신형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적인 자아 상태는 아니지만, NP가 높게 나타나는 교수자의 일반적인 자아 상태와 비슷한 결과이다. 반면에 선행 연구(송희자 2010)에서 나타난 A 우위의 도서관 사서형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NP와 AC가 높고 A와 CP 그리고 FC가 낮은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아 상태가 이용자 봉사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NP가 높은 자아 상태는 ‘이용자를 복돋아주고 격려하고 불편한 점을 보살피는 양육적 태도’와 같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NP가 지나치게 나타나면, ‘학습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개입하여 자주성을 해치는 언동’을 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둘째, AC가 높은 자아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반면에 AC가 지나치면 ‘상대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어 자신을 억압하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A가 낮은 자아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미 보다는 기계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거나, 일 이외에는 즐기지 않는 감정이 무뎠던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넷째, CP가 낮은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구속을 받거나,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비판력이나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다섯째, FC가 낮은 자아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 할 수'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사서는 NP와 AC와 같이 높은 자아 상태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외부로 표출되는 자신의 자아 상태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낮은 자아 상태를 보이고 있는 A와 CP 그리고 FC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는 사실에 입각한 판단과 분석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특히 P와 C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자아 상태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서에게 요구되는 자아 상태이다. 일상생활에서 A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메모하는 습관 기르기, 육하원칙을 활용하여 묻고 생각하기, 하고 싶은 것을 미리 문장으로 구체화하기, 찬반 양쪽을 모두 파악하고 판단하기, 남의 말을 여유 있고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자기표현 하기'등이 있다(송희자 2010, 65; 우재현 2013, 46). CP는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개인과 조직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과 관련된 자아 상태이다. 일상생활에서 CP를 활성화기 위해서 '자신을 갖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등을 펴고 동작을 크게 하기, 모임의 장을 맡아서 활동하기, 인생과 업무의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기, 사물의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기, 타인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게 하기'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송희자 2010, 65; 우재현 2013, 46). 끝으로 FC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자유스러운 행동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과 관련이 깊다. 특히 학습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자아 상태로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행동 특성이다. FC의 활성화 방법으로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며 크게 웃어보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동호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사소한 일에 구애 받지 않기, 태도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등이 효과적이다(송희자 2010, 66; 우재현 2013, 46).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조직 내에서 사서 상호 간 상호작용과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의 교육환경으로서의 위상과 사서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행동 특성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평가하는 사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아 상태를 이해하고, 이용자와 교감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자아 상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서의 수를 확대하고, 설문과 면담을 병행함으로써 자아 상태와 직무 만족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보서비스나 이용자 연구 영역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규수, 이병래. 1995. 유치원교사의 자아 상태 유형에 관한 연구. 『원대논문집』, 30(1): 319-340.
- 김미선. 2012. 부모의 그림책 읽어주기 방법과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1): 173-196.
- 김중호. 2008. 교류 분석(TA)의 자아 상태 측정을 위한 한국형 Egogram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9(3): 877-903.
- 박명희. 2004. 『에고그램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기호. 2014.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2): 77-95.
- 송희자. 2010. 『교류 분석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우재현. 2008. 『교류 분석(TA) 입문』. 제2판. 서울: 정암서원.
- 우재현. 2013. 『이고그램 243패턴: 성격의 진단과 개선』. 제8판. 서울: 정암서원.
- 유영현, 박경숙, 최용용. 2011. 이고그램과 에니어그램의 관계 연구. 『교육분석 연구』. 2(2): 1-17.
- 이병래. 1996. 자아 상태 검사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지』, 1(1): 141-164.
- 이은주. 2007. 교사의 대인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고찰.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5(2): 109-138.
- 조성연, 정정옥. 2004. 보육시설장의 지도성과 이고그램에 의한 성격 유형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원』, 38: 67-83.
- 한국교류 분석협회. 2012. <<http://www.ta.or.kr>> [인용 2015. 03. 15].
- 한윤옥 외. 2012. 성격유형을 적용한 청소년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77-97.
- 한윤옥, 조미아. 2013. 어린이·청소년의 성격유형별 대출도서 선호도 차이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255-274.
- IFLA/UNESCO. 1994. *Public Library Manifesto*.  
<<http://archive.ifla.org/VII/s8/unesco/eng.htm>> [cited 2015. 4. 12].
- Koontz, Christie, and Barbara Gubbin. 2010. *LFLA Public Library Service Guidelines*. 2nd. ed. New York : IFLA Publications.
- Prentice, Ann E. 2011. *Public Libraries in the 21<sup>st</sup> Century*. Santa Barbara : Libraries Unlimited.
- Shera, J. H. 1984.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 윤영 옮김. 서울: 구미무역(주)출판부.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Song-Yon, and Chung-Ock Chung. 2014. "Leadership of Day Care Center Directors with Personality Types by Egogram."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38: 67-83.
- Han, Yoon-Ok et al. 2012.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Reading Guidance Program for the Youth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1): 77-97.
- Han, Yoon-Ok, and Mi-Ah Cho. 2013. "Analysis of Difference of Preferred Loan Books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255-274.
- Kim, Jong-Ho. 2008. "Development of Criterion of Korean Egogram for Measuring Ego-state in Transactional Analysis." *Korea Journal of Counselling*, 9(3): 877-903.
- Kim, Kyu-Soo and Byung Nae Lee. 1995. "A Study of Kindergarten Teacher's Egogram." *THESES(Wonkwang University)*, 30(1): 319-340.
- Kim, Mi-Sun. 2012. "A Study on the Relation of Parents' Ways of Reading Picture Books and Their Enneagram Personality Types."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7(1): 173-196.
- Korean Transactional Analysis Association. 2015. <<http://www.ta.or.kr>> [cited 2015. 3. 15].
- Lee, Byung-Nae. 1996.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Egogram Checklist."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1): 141-164.
- Lee, Eun-Joo. 2007. "A Study on The Pattern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f Teache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5(2): 109-138.
- Park, Myeong-Hee. 2004. *The Effect of Ego-states of Egogram and Attach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Work Satisfaction*. M.A thesis. Han 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Shera, J. H. 1984. *Sociological Foundation of the Library Science*. translated by Yun, Young. Seoul : Gumimooyeok press.
- Song, Gi-Ho. 2014. "A Study on the Ego State Types of Teacher Librarians." *Journal*

-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2): 77-95.
- Song, Hi-Ja. 2010. *Introduction to Transactional Analysis*. Seoul : Sigmampress.
- Woo, Jae-Hyoun. 2008. *Induction of Transactional Analysis*. 2nd ed. Seoul: Jeongamsewon.
- Woo, Jae-Hyoun. 2013. *Egogram Pattern 243: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Personality*. 8th ed. Seoul: Jeongamsewon.
- Yu, Yeong-Hyeon, Kyung-Sook Park, Woong-Yong Choi. 2011. "Relation among the Subscales of the Egogram and Enneagram." *The Journal of Korea Transactional Analysis Research*. 2(2): 1-17.

[부록]

이코그램 체크리스트

문항 번호	문항	척도				
		(1) 매우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	자기의 손익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편이다.					
2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남의 말을 가로막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일이 있다.					
4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하지 못하는 성질이다.					
5	다른 사람을 엄하게 비판하는 편이다.					
6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헤아려 준다.					
7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8	대화 중에 감정적으로 되는 일은 적다.					
9	호기심이 강한 편이다.					
10	시간 약속이나 돈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을 싫어한다.					
11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고 싶어 한다.					
12	남의 부탁이라면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13	양보심이 많으며 참는 편이다.					
14	사회의 규칙, 윤리, 도덕 등을 중시한다.					
15	사물을 분석적으로 깊게 생각한 다음에 결정한다.					
16	싫은 일은 핑계를 달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17	아이들이나 남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을 좋아한다.					
18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타협하는 일이 많다.					
19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편이라고 생각한다.					
20	예절이나 규범에 까다로운 편이다.					
21	남의 의견은 찬반양론을 듣고 참고로 한다.					
22	놀이나 음식 등을 만족할 때까지 찾는 편이다.					
23	남에게 책임감을 강하게 요구한다.					
24	타인에 대해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25	남의 안색이나 말에 신경을 쓴다.					
26	피로울 때는 참는 편이다.					

2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2호)

문항 번호	문항	척도				
		(1) 매우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 렇다	(5) 매우 그 렇다
27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같은 말을 자주 쓴다.					
28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서슴없이 말해 버리는 편이다.					
29	작은 잘못이라도 흐지부지 지나치지 않는 편이다.					
30	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한다.					
31	자기감정을 억누르는 편이다.					
32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않으면 못 배기는 편이다.					
33	무슨 일이나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한다.					
34	'야, 멋있다, 우와'와 같은 감탄사를 자주 쓴다.					
35	자신이 없고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다.					
36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는 편이다.					
37	농담을 잘하는 편이다.					
38	화내는 일이 많은 편이다.					
39	좋다, 나쁘다를 분명하게 말한다.					
40	앞으로의 일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41	잘 모르는 것은 질문이나 상의해서 처리한다.					
42	아이들이나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해 관대하다.					
43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공감하는 편이다.					
44	아이들이나 아랫사람을 엄격히 교육시킨다.					
45	흥에 겨우면 도에 지나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46	길을 물으면 친절히 가르쳐 준다.					
47	감정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은 편이다.					
48	친구나 가족들에게 무엇이든 사주는 것을 좋아한다.					
49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자중해서 무리를 하지 않는다.					
50	동정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